22일 Market Index

코스피 2508.13 (-6.84)
코스닥 857.35 (-3.33)
금리(국고채 3년) 3.876 (-0.054)
환율(원·달러) 1336.80 (-2.90)

metro 경제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LG화학-中화유그룹 모로코에 5만t 규모 LFP 양극재 공장 건립 04

K반도체 최악 피했지만… 삼성·SK, 脫중국 대안 고심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

공개된 초안서 큰 변동 없어
웨이퍼 생산제한 등 일부완화
장기적 中 제재 강화는 여전
인도 등 공장유치 위해 총력

미국이 '가드레일' 최종 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 의견을 일부 반영하긴 했지만, 중국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했다. 중국에 적지 않은 규모로 투자를 이어왔던 국내 반도체 업계도 대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관련기사 3면〉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 조항인 가드레일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가드레일 규정은 미국에 반도체 투자 지원금을 받으면 10년간 지켜야하는 조항이다.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을 확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확정된 최종안은 지난 3월 공개한 초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연간 생산량을 전년 대비 18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는 5%, 이를 넘는 레거시 반도체도 10%이상 증산할 수 없다.

오히려 업계 의견을 반영해 완화한 부분도 있다. 웨이퍼 생산량 제한 기준을 당초 월에서 연으로 바꿔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중대한 거래' 규제도 삭제, 장비 반입도 따로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규제를 강화하지 않은데만으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최근 중국이 7나노 반도체를 자체 생산한데다가 국내산 메모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규제 확대 우려가 있었지만, 일단은 업계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를 유지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 생산기지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목적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생산량을 제한한다는 것은 선단 공정 도입을 막고 수익성도 낮추겠다는 의미이기 때문. 현지 메모리 업체가 빠르게 기술력을 높이고 있는 탓에 경쟁력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인도와 베트남 등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유치에 힘을 쏟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을 떠나는 산업을 자국으로 들여 성장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

그 중에서도 인도는 이미 적극적인 구애 작전을 시작했다. 2021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1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등 물심양면 지원에 나서면서 마이크론이 10조원에 가까운 투자를 발표했고, 국내에서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디스플레이 업계가 인도에 투자와 진출을 진행 중이다.

전체 산업계에서도 인도는 이미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산업들이 새로운 거점으로 삼고 투자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3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태권도 품새 강완진, AG 韓 첫 금메달 태권도 품새 대표팀의 강완진(25·홍천군청)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강완진은 24일 중국 항저우 린안 스포츠문화전시센터에서 벌어진 대회 품새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1, 2경기 평균 7.730점을 기록해 대만의 마윈중(7.480점)을 꺾었다. 강완진이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美 고금리 장기화 예고… 주담대 부담 불가피

국고채 10년물 금리인상 땐
은행채 5년물 금리도 올라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동안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져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사람)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는 지난 22일 기준 연 4.17~7.10%로 집계됐다. 전날(연 4.17~6.19%)과 비교하면 상단이 1%포인트(p) 가까이 올랐다.

이날 주담대 고정금리도 연 3.90~6.47%로 전날(연 3.90~6.09%) 보다 상단이 0.33%p 올랐다. 이달 1일 5대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05~6.97%, 고정금리는 연 3.83~6.25% 수준이었다.

◆美 10년물 국채 금리 2007년 이후 최고

주담대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21일 기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4.030%로 전날보다 0.078%p 상승했다. 연중 최고수치로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4% 선을 돌파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국내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를 산정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른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22일 기준 평균 4.4712%로 이달 1일(4.2612%)과 비교해 0.2%p 상승했다.

문제는 이 같은 금리인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한국은행의 '한미금리 동조화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장기금리의 경우 미국 국고채 금리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채(10년물) 금리는 지난 4월말 3.42%, 5월말 3.64%, 6월말 3.84%로 상승했는데, 이에 동조해 국고채(10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3.36%, 3.53%, 3.68%로 올랐다. 8월말 미국채 금리가 4.11%로 오르자 국고채 금리도 3.82%로 상승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社告

메트로경제 '2023 제약·바이오포럼'

블록버스터 신약 위한 꿈 플랫폼·오가노이드 '새물결'

메트로경제는 오는 10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에서 '바이오의 새물결, 플랫폼과 오가노이드'란 주제로 '2023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의 꿈을 좇아 연구개발(R&D)에 매진해 온 시간은 어느 덧 20년을 훌쩍 넘었고 크고 작은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을 바탕으로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의 영역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기업들도 다수 등장했다. '글로벌 블록버스터(연 매출 1조원 이상의 신약)' 개발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올해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연매출 1조원 이상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만들고, 연매출 3조원 이상 글로벌 50대 제약사 3곳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글로벌 신약 개발 10개를 목표로 5년간 민관이 합쳐 25조원 투자도 추진 중이다.

다만, 시장은 여전히 어렵다. 신약 개발은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다, 여전히 높은 규제 등으로 성공 확률이 낮은 탓이다. 기업들이 적자를 감수하며 십수년간 연구개발에 매진해도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불안감은 제약·바이오 업계로의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80여년 만에 동물실험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고, 비동물 실험을 거친 약물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역시 동물 실험의 점진적 폐지를 선언하며 글로벌 임상의 장벽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생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신약 개발 비용과 시간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동물 실험 대신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만이 가진 독자 기술을 활용해 개발 중인 치료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지속되고 있다.

메트로경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제약·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짚어보고, 글로벌 블록버스터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향을 모색해 볼 예정이다.

- 행 사 명 : 2023 제약&바이오포럼
- 일 시 : 2023년 10월 25일 오후 2시~5시
- 장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주 제 : 바이오의 새물결, 플랫폼과 오가노이드
- 강 연 :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기조강연)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이사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연구센터장
  오일웅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연구과장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 2023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metro

버스티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尹, 외교 다음 초점은 중국… 시진핑, 연내 방한 주목 /사진 뉴시스

▲ 민주 새 원내대표에 '친명 중진' 3인 출마… 김민석·남인순·홍익표

▲ 여당 "문 전 대통령, 이재명 구속위기에도 공익사업 홍보"

▲ 한총리, 항저우서 韓선수단 격려… 강원동계유스올림픽 홍보도

▲ 박진, 네덜란드·우간다 등과 회담… '중견5개국' 믹타 회의 참석 /사진 뉴시스

▲ 김정은, '9·9절 축하' 시진핑에 답전… "긴밀히 연대 협력"